

르네상스 문화가 속옷디자인에 미친 영향

윤진아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The Effect of Culture on Underwear Design in Renaissance era

Jin-A Yo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2005. 7. 26. 접수; 8. 9. 채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change of women's underwear in the Renaissance, which had a sudden change of shape.

First, the spirit of the Renaissance was focused on human-attached importance to glamorous beauty of the body and pursued the glamorous well-proportioned figure as the ideal of the human body. This expressed a woman's beautiful curved lines by reduction of their waist size and emphasis of breast and hip lines. It also created and emphasized one's physical figur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sex. Also the materials and size of underwear cleared up the classification of class.

Seco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weaving techniques, more textiles were produced, from linen, the most common material used, to silk in underwear and stomacher, and chemise, which was made more splendid by devising elaborate embroidery techniques.

Third, as we know that the farthingale was devised in Spain and transmitted to France because of the prevalence of printing and trade, where it changed and developed to more convenient style, this shows that information interchange was active, and we can see the phenomenon that it is developing continually through the prevalence of printing and trade.

Key Words: focused on human(인간중심), classification of class(계급구분),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교류)

I. 서론

복식의 형태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의복의 발달로 인해 걸옷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 중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변하면서 복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신체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코르셋과 스토타키, 파팅게일 등에 의해 인체는 이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 왔고.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처이며, 복식 문화사적 연구에도 매우 의미가 있는 시대임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속옷이 겉옷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의복 전반을 지칭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다양한 사고가 나타나고, 성적(性的)인 정책, 현대의 기술, 패션 스타일의 빠른 계승, 대중 매체의 발달 등으로 겉옷과 속옷의 선이 흐려져 단순히 겉옷 안에 입혀지는 의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도 속옷으로 포함하게 되었다.¹⁾ 그러므로 현대복식의 형태 변화에 기초가 되는, 특히 속옷의 가장 많은 변화와 다양한 종류가 있었던 르네상스시대의 연구는 새로운 모드를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기초단계로서의 역할과 현대 패션의 이슈가 되고 있는 속옷의 겉옷화에 대한 빠른 이해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속옷에 대한 연구는 품목별 고찰, 시대별 고찰, 예술 양식사 및 미학적 고찰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속옷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르네상스시대의 문화 및 복식을 고찰해보고 속옷의 형태변화가 어떠한 영향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는 속옷의 형태변화가 가장 컸던 르네상스시대의 여성 속옷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국내의 문헌과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한다.

II. 르네상스문화의 일반적 고찰

1. 르네상스의 출현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어의 *renaissance*, 이탈리아어의 *rina scenza*, *rinascimento*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 내려는 운동으로, 그 범위는 사상·문학·미술·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르네상스의 배경은 넓은 의미의 중세 세계의 붕괴였다. 14·15세기는 바로 전유럽적인 규모로 중세 세계가 붕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르네상스는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잠재적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는 이태리적인 현상이었으며 이태리에서 먼저 전개되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태리의 르네상스에 촉발(觸發)된 것이다.²⁾ 이태리는 로마제국이 있었던 고전의 옛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 유적과 유물이 풍성하였고 또 잘 보존되어 있었기 게르만족에 의해 파괴된 옛 전통을 되찾는 고전의 부활은 문화적 민족주의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중세 봉건체제의 특징적인 양상은 이태리에서 가장 미약하였고 하나의 통일국가가 아니라 도시마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분립주의 상태였다. 14세기 이태리에 분립되었던 군소국가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차차 세력 있는 국가에 의해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15세기 중기에는 대체로 5개의 큰 도시 국가로 이태리의 판도가 나뉘어졌다. 즉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교황령 국가 및 나폴리 왕국이었다. 르네상스기의 이태리 정치체제는 분열과 대립, 외부세력의 개입 등으로 매우 번거롭고 어수선하였다. 피렌체 공화국은 이태리 서부 토스카나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15세기 초까지 매우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피렌체 세력의 근원은 모직공업과 금융업이었으며 대개 부유한 가문의 소수 집단에 의해 지배되었다. 형식상 공화정이었으나 15세기 전반에 대금융가인 메디치(Medici)가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3대에 걸친 60여년간의 전제정이 계속되었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르 8세가 이태리로 침공해 왔을 때 도미니쿠스바 수도 성직자인 샤보나롤라가 개혁을 주장하여 피렌체의 시정을 장악 하였다.

밀라노는 롬바르디아 평원에 있었으며 비스콘티(Matteo Visconti)가의 독재정치하에 있었으나 실상 그 지배아래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1402년 잔갈리아조 비스콘티의 사후 공국은 분열하고 쇠퇴하여서 상대적으로 베네치아와 피렌체의 세력이 팽창하게 되었다. 그 후 용병출신인 프란체스코 스포르자(Francesco Sforza)가 불법 집권하여 밀라노 공이 되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를 면하고 있으며 정치 형태는 행정 총 책임자인 통령(doge)과 원노원, 10인 위원회로 이루어진 혼합 형태인데 이러한 체제는 정치의 안정을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용

병을 이용해 외부로의 팽창을 꺾하였다. 15세기초 밀라노의 세력에 위협을 느낀 베네치아는 밀라노에 침입하여 롬바르디아 평원의 동쪽을 지배하였다.

이태리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교황령 국가는 교황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교황의 바빌론 유배」 등의 대분열이 끝난 후 1417년 이 난립을 통제하기 위해 르네상스의 교황들은 일반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동맹, 조약파기, 용병채용 등의 책략에 익숙해져 갔고 1513~1521년에 집권한 메디치가 출신의 레오 10세 때 문예발달의 황금기를 맞았다.

나폴리는 르네상스 기간 동안 프랑스계의 앙주(Anjou)가와 스페인의 아라곤(Aragon)가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봉건적 색채가 짙어 르네상스적인 고전문화의 부활과 문예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2. 르네상스의 사상적 측면

르네상스운동은 휴머니즘으로 그리스·로마의 고전 고대의 문예와 철학에 대한 관심을 깨우치는 운동으로서, 현세의 인간사 및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새로운 학문으로서 고대의 문예, 유물 등을 수집, 조명, 부주하여 고전언학을 연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학문적 관심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 평가하는 인생철학이 나오게 되었다.³⁾ 그리하여 근세 유럽을 지배했던 휴머니즘이 탄생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개인주의가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도시문화의 발달에 따른 현실주의적·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대두와 고전 고대애의 관심, 그리고 정치, 경제적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르네상스 개인주의적 경향⁴⁾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흥미 있는 개인이 잇달아 출현하여 르네상스문화를 추진시켰다. 재능있는 르네상스인은 미술분야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주로 피렌체가 그 중심이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 미술가들은 화가, 조각가 일뿐만 아니라 생리학자, 물리학자, 화학자이기도 했다.

건축 양식은 고전시대 부활을 반영하여 하늘 높이 솟아올랐던 고딕 건축으로부터 로마의 돔(dome)과 아치형식, 그리스의 균형과 수평을 강조하는 건축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부유한 도시민들도 문예와 학문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태도도 현세중심사고와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 받고 있었다.⁵⁾ 이러한 풍조는 르네상스인들을 향락주의로까지 흐르게 하였다.

3. 르네상스의 경제적 측면

경제적으로 이태리는 십자군 이래 재개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세계를 연결하는 원거리 상업을 하여 서구 여러 나라에 앞서 화폐경제가 발달됨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적 자본주의 형태에 의한 산업 활동이 전개되었다.

상업과 공업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크게 변하였고 이태리의 도시민들은 자본을 축적하여 이윤증대를 재투자하는 활동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르네상스운동에 도시민들의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해상을 통한 통상의 규모와 범위는 커졌으며 상인들은 동업과 회사의 조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였고 또한 대금업과 은행업이 성행하여 금융자본가가 나오게 하였다.

도시민들의 부의 축적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을 위주로 했던 중세의 내세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 이러한 태도에 대한 결과는 알프스 이북의 유럽국가들에서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한 종교개혁 운동에서 사회 개혁적인 경향으로, 이태리는 문예부흥에서 이어지는 탐미적인 경향으로, 서로 다른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방의 르네상스는 새로운 종교를, 이태리 르네상스는 새로운 예술을 낳았던 것이다. 또한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사학이 발전하였고 현미경의 발명과 같은 자연과학분야도 발전하였으며 나침반을 개량하여 대양항해가 가능하게 되고, 항해술의 발달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있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의 확보로 시장개척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 커다란 경제적 발전이 있었으며 상업, 공업, 농업 등의 경영형태가 점차 근대적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 무엇보다 인간자아의 발견으로 16세기는 이제껏 신중심의 생활에서 인간 중심의 생활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개인주의·향락주의 풍조가 만연했다.⁶⁾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인쇄기의 발명이었다. 1452년 요한구텐베르그(Johann Gutenberg)에 의해 창조된 인쇄기는 지식을 널리 전파하였고 통신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책을 거래하는 무역(달력, 영행에 관한 책, 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예의범절과 의복에 관한 책까지)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⁷⁾

르네상스는 중세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세와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근세사의 서막이라고 불려지는 르네상스는 중세와 근세의 과도기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한계성을 지닌 중세에 비해 개방적이고 분열적이라 할 수 있다.⁸⁾

Ⅲ.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1. 복식의 형태

15세기말부터 16세기초기에는 유럽에 있어서 이탈리아 복식의 영향력이 컸으며 이탈리아 복식의 특징은 그 당시 다른 나라 복식에 나타난 과장을 하지 않은 단순함과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운 선으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절제를 나타내고 있다.⁹⁾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으로 건너온 르네상스 복식 문화는 16세기 전반기에 독일 모드가 유행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인간 중심적이던 이탈리아 모드와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었다.

16세기 전반기의 복식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특징은 높이를 강조하던 고딕말기의 복식에서 넓이와 부피감을 강조한 형태로 복식이 변화한 것이다. 중세 말기 버건디 왕조풍의 뾰족한 고딕의 복들은 15세기 말엽의 과도기에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남성들의 길게 주름진 외투와 뾰족한 신발은 패드로 부피를 강조한 옆으로 떡 벌어진 어깨, 짧은 외투와 코가 넓고 네모진 신발의 형태로 바뀌었

다. 여성들의 높았던 헨닌(hennin)과 높은 허리선, 브이 네크라인과 길게 끌리는 의복자락 역시 납작한 헤드 드레스, 제자리로 돌아온 허리선, 네모진 데콜라쥬(decolletage)와 길게 과장되지 않은 스커트로 대체되었다.

후반기는 스페인이 유럽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스페인 복식의 특징은 구조물과 같이 견고하고 딱딱하게 보이는 실루엣과 뾰뾰한 직물사용 등으로 종교와 관련된 형식성·엄격성·경직성·등을 나타내었다.

영국의 헨리8세(Henny VIII), 프랑스의 프랑소와즈 1세(Francis), 스페인의 샤를르 5세(Charles V)등이 이러한 인체를 극단적으로 넓게 만든 스타일을 잘 소화한 당시의 패션 리더들이었다.¹⁰⁾

르네상스 시대 남자들의 기본 복식은 슈미즈위에 더블릿과 저킨을 입고, 그 위에 두터운 가운이나 짧은 케이프를 덧입었다. 중세의 언더 튜닉에서 비롯된 흰색의 린넨, 실크, 또는 타프트로 만들어진 셔츠를 입었다는 것은 당시의 농민들과 신사를 구분 짓게 했던 잣대였다.¹¹⁾ 또한 16세기 초반까지는 저킨 속에 입는 속옷으로 간주되었던 더블릿은 16세기 중반부터 손목 부분에서 꼭 맞는 레그 어브머튼과 스탠드 칼라를 가진 전개형의 외투가 되었다. 앞부분을 단추로 채우고 아주 짧은 엉덩이 길이의 스커트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1570년 이후엔 앙리 3세에 의해 유행되기 시작한 피스코드 벨리(peascod belly)룩의 더블릿이 등장하였다.

하의는 1550년 이후부터 한 피스의 호즈가 위 아래로 분리된 어퍼 스톡(upper stocks)과 네더 스톡(nether stocks)을 입었다. 어퍼 스톡은 후일에 브리치즈(breeches) 또는 트렁크 호즈가 되었고 네더 스톡은 기다란 스타킹이 되었다. 1570년 이후에는 캐니온즈(canions)와 베네치안 브리치즈가 유행하였다. 캐니온즈는 짧은 트렁크 호즈 아래 입는 튜브 형태의 확장된 무릎기장의 호즈였다.¹²⁾

여성복은 슈미즈라 불리는 원피스 형태의 속옷 위에 바디스와 스커트로 분리된 로브를 입었고 스토타커라는 가슴을 가리는 역삼각형의 부속품을 착용하였다. 이탈리아 여인들은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로브위에 쉬르코를 덧입었다. 북유럽의 실루엣은 자연스러운 이탈리아와 조금 다르

게 후프와 코르셋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확대시킴으로써 모래시계형의 실루엣이 유행되었다. 이탈리아 로브의 소매는 퍼프와 슬래쉬를 이용한 타이트 슬리브가 주를 이룬 반면, 북유럽에서는 거대한 턴업 커프스(turn-up cuffs)의 벨 슬리브와 폭이 넓은 언더슬리브 또는 방한복으로 로브위에 어떤 외투를 착용했다는 증거는 어느 그림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지만 스페인 여인들만이 금사 자수로 뒤덮인 검정색의 소매가 없는 로파(ropa)라 불리던 외투를 입었다. 스페인에서 애용되었던 로파는 어깨에 걸치게 재단되고 보통 허리띠를 매지 않은 채 로브 위에 입혀졌다.¹³⁾ 16세기 말이 되면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휠 파팅게일, 길어진 허리선과 스토마커 등 인체를 심하게 왜곡한 스타일들이 앙리 3세 치하의 프랑스 궁정과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의 영국 궁정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2. 속옷의 형태

속옷이란 겉옷 속에 받쳐 입는 의복류의 총칭¹⁴⁾으로, 착용 목적에 따라서 화운데이션(foundation)이라고 하는 보정의(補整衣)와 란제리(lingerie)라고 부르는 장식 속옷, 그 밖에 속옷류(underwear)등의 3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된다. 겉옷이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모드를 형성하며 변천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속옷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겉옷의 형태와 기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므로 속옷에 관한 연구 또한 그 시대의 인간상, 나아가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매개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⁵⁾ 특히 르네상스시대의 속옷 고찰은 겉옷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준 시대이므로 더욱 의의가 있다.

1) 슈미즈(Chemise)

가장 안에 살에 직접 닿게 입던 헐렁한 남녀 공용의 속옷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려 몸통을 감싸게 착용하였다.¹⁶⁾ 슈미즈란 말은 주로 노르만(Norman)인들이 많이 사용하였고, 색슨(Saxon)인들은 흔히 스мок(Smock)이란 말을 사용하였다.¹⁷⁾

14세기~15세기의 슈미즈는 목둘레가 크고 여유가 있으며 소매를 겨드랑이에 꼭 끼게 하여 가슴을

강조케 했으며 앞 목둘레에 주름이 잡혀 있고 수가 놓여 있었으며 소매 끝에는 러플(ruffle)장식이 있었는데 1412년에는 신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선정적인 슈미즈도 있었다. 대개 백마(白麻)로 만들어졌고, 귀족들은 자수가 된 백견(白絹)을 사용하였는데, 때로 앞 목둘레에 주름이 잡혀있고 수가 놓여 있었다.

그 후 16세기의 슈미즈는 겉옷 밖으로 보이는 목둘레나 소매부리를 통해 살피볼 수 있는데, 슈미즈의 칼라가 높이 위로 올라 프릴(frill)이 달려있는 가장자리가 보이기도 하고 가운데가 벌어져 있기도 하며 목둘레를 끈으로 헐렁하게 묶은 형태도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정교한 자수를 놓거나 주름을 잡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린넨, 울, 금·은사가 들어간 린넨, 실크 등으로 만들어졌고, 스위트 파우더나(Sweet powder)나 약초 혹은 달콤한 향 등의 강한 향기를 속옷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향을 사용한 것은 목욕을 자주 하지 않은 신체의 냄새를 없애 줄 뿐만 아니라 세탁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속옷의 세탁은 마누의 재(wod-ash)를 사용하였다.¹⁸⁾

16세기 중엽에 사용했던 소재는 캄브릭(cambric, 흰 삼베), 홀랜드(holland, 삼베의 일종)이며 이따금 실크도 사용했다.

2) 코르셋(Corset)

코르셋은 흉부(胸部)에서 복부(腹部)까지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 시대에 유행되는 의상의 아름다운 실루엣(silhouette)을 표현하기 위해 체형을 고정시키고자 사용되었던 여성용 기초 속옷으로 프랑스에서는 코르셋, 영국에서는 스테이스(stays)라 했다.¹⁹⁾ 본격적인 코르셋 사용은 1577년경에 나타나면서 여성들의 허리를 조이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엔 허리를 인위적으로 조이는 정도가 고딕 시대의 코르사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했는데, 가는 허리에 부풀린 스커트는 부와 권력의 표상이었다. 르네상스 당시에는 코르셋이라 부르지 않고 바스핀느(Basquine), 꼬르피케(Corps-pique)로 불려졌다.

신체를 가다듬기 위해 착용했던 코르셋은 그 형태나 재질이 시대마다 차이가 많아 겉옷에 맞추어 꾸준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15세기 코르셋의 일반적인 형태는 짧은 소매가 있는 원피스 드

레스 형으로 몸을 가늘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자들은 이것을 꼬뜨(cotte)위에 또는 꼬뜨(cotte) 대신에 사용했다.²⁰⁾

그 후 16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바스핀느(Basquine)

바스핀느는 16세기 전반에 사용한 코르셋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웨이스트 코트(waistcoat)나 웨일본드 바디스(whaleboned bodice)라고 한다.

바스핀느의 형식은 앞이나 옆, 또는 뒤가 트인 조끼 형식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약 3-4cm 폭의 바스크(basque)를²¹⁾ 형겅에 쓴 다음 풀 먹인 2장의 린넨 사이에 삽입시켜 딱딱하게 부풀리면서 형태를 만들었다.²²⁾ 바스핀느 이외에 단단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0.5cm정도의 고래수염을 앞, 뒤, 옆 등에 부분적으로 몇 개 나란히 삽입하던 것을 점차 조밀하게 삽입시켰다. 주로 앞, 중앙, 등, 옆구리, 그 밖의 요소요소에 넣어서 전체의 형태를 이루었다. 바스킨의 길이는 동의(胴衣)의 목둘레선으로부터 하단까지이며 하단부는 삼각형으로 뾰족했던 것이 점차로 하복부로 봉장으로 뾰족지게 된 것이다. 바스핀느 아래에는 끈이 달려 있어서 스커트를 부풀리는 속치마와 연결시킬 수 있게 디자인했다.

(2) 꼬르피케(Corps-pique)

꼬르피케는 「누비 동의(胴衣)」라는 뜻으로 1577년에 나타나 다음 세기까지 계속 되었는데 종래의 바스핀느보다 더 강하게 몸을 조일 수 있도록 재료의 구성법이 한층 발달된 것이다. 형태는 두 겹 이상의 린넨을 겹쳐서 누비 바스핀느의 딱딱함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뮌헨의 박물관에 소장된 꼬르피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바스크와 버팀살은 없어졌지만, 그것을 삽입했던 장소는 박음질에 의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 트임은 앞, 뒤 중앙 또는 양쪽 모두 좌우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조여 묶었다. 가는 끈의 끝에는 금속이 붙어 있어서 통과하기 쉽게 되었다. 끈이 통과하는 구멍은 옷감 끝으로부터 1cm들어간 곳에 3~5cm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트고 구멍 주위는 튼튼한 실로 출출

하게 처리하였다. 버팀살을 넣은 장소의 스티치 폭은 0.6cm내외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가는 버팀살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앞트기의 로브(Robe)가 유행되었기 때문에 꼬르피케의 앞면 장식은 중요하게 되었으며 꼬르피케 위에 스토마커를 착용한 것도 있다. 착용방법은 지극히 단순한 통형 형태의 슈미즈 위에 꼬르피케를 입어 상체를 정리하고 다음에 베르튀가뎡을 착용했다. 이때 동의(胴衣)와 버팀대의 결합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가 가는 끈을 통해서 서로 결합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밀 스커트를 한 벌 또는 그 이상을 착용하고 다음에 로브를 입으면 복장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허리를 원하는 만큼 가늘게 조일 수 있도록 얇은 철제로 꼬르피케를 디자인한 것도 있다.

3)파팅게일(Farthingale)

파팅게일은 둥근 뼈대나 밴드로서 의복을 과장되게 보이기 위해 사용했던 장안물의 총칭이며, 시대별로 살펴볼 때 형태뿐만 아니라 그 명칭도 무척 복잡하고 다양하다. 파팅게일(farthingale, vertugadin(프랑스))은 16세기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버팀목으로 스페인에서는 vetugado라 하였는데, 이것은 스페인어의 vetugado에서 유래된 말로 「가지가 휘어지는 녹색의 어린 나무」를 의미하며 vetugado는 어린나무를 뼈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로 전해져서 vetugale, vetugle, vetugade, vetugadin등의 이름으로 쓰이다가 결국 vetugadin이 일반적 명칭이 되었다.

후프의 일종인 파팅게일은 맨 처음 스페인에서 고안되었을 당시 종형이었던 것이 1530년대에 프랑스, 1540년대에는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룰형과 월형으로 변화되었다. 파팅게일이 유행한 당시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스페인 복식이 대단한 세력을 떨치며 크게 유행하였다. 엄격함과 단정함으로 인체를 기교적으로 감추는 딱딱한 실루엣의 스페인 복식의 영향으로 스페인식 베르튀가뎡이 출현했다. 이는 1545년 이후 유행되기 시작하여 노동계층을 제외한 광범위한 계층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²³⁾

(1) 스페인 식

스페인식 파팅게일은 15세기 스페인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으며 1545년 이후 유행되기 시작하여 노동계층을 제외한 광범위한 계층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형태는 둥근테(hoop)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안에서 천을 맞붙여 고정시키는데, 테의 둘레는 허리에서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커져서 맨 아래 것을 제일 크게 만들었으며 맨 밑 도련 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다. 테의 크기와 배열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따라 윤곽선이 원추형이나 종형으로 나타나게 됐다.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는 철사, 등나무, 골풀(ruch), 고래수염 등으로 만든 틀을 린넨이나 면으로 감아 풀먹인 린넨 속치마에 붙인 형태인데, 직경이 작은 틀을 위에 큰 틀은 밑에 두어 거꾸로 한 깔대기 모양을 만들고 있다. 소재로는 마직물 이외에 여러 종류의 모직물, 버크럼(buckram)²⁴⁾과 퍼스천(fustian)²⁵⁾을 비롯해서 벨벳(velvet), 타페타(taffeta), 비로도, 모카도(mocado)²⁶⁾ 등의 고급 견직물이 사용되었고, 색은 백색, 적색등이 있었다.²⁷⁾

(2) 영국 식

스페인식 파팅게일이 영국으로 도입된 것으로 스페인 왕 Ferdinand의 딸 Catherine of Aragon이 영국왕 Henry 8세와의 결혼식 때 이것을 착용함으로써 도입되었다고 한다.²⁸⁾

초기의 형태는 스페인식 파팅게일과 비슷하여 허리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점차 폭이 증가되는 종형이었으나 1586~1588년경 Elizabeth 1세 시대 때 새로운 형태의 휠(Wheel)파팅게일 이라고 하는 대형 버팀대가 창안되었다. 형태는 허리에서 수평으로 수레바퀴 모양으로 퍼지며 원통형의 실루엣이 되었다. 그것은 크기가 120cm까지 달했다고 한다.²⁹⁾ 풀먹인 린넨 천에 고래수염, 철사 등을 이용해 둥근테를 만든 후 이것을 수평으로 여러 단을 달아 붙여 둥근테의 직경을 모두 같게 하여 허리부터 단까지 연결시켰다. 이때 직경의 크기가 커서 많은 양의 직물과 뼈대를 필요로 했으며 대개 다마스스크(damask)와 타페타(taffeta)등이 사용되었다.

영국의 휠 파팅게일은 프랑스식보다 더 다양한 골격재료와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다채롭게 만들었으며 크기도 매우 방대했다.

(3) 프랑스 식(hausse-cul, roll farthinggale, bum-farthinggale)

프랑스식 파팅게일은 구성 면에서 롤 파팅게일(roll farthinggale)이라고 불렀는데 15세기 말에 스페인에서 보여지긴 했으나 1580년 이후 프랑스에서 많이 입혀진 것으로 형태는 구멍 벨트 모양으로 속을 심으로 채우고 겉을 면포로 싼 것으로 양쪽 끝에 끈을 달아 앞 중심에서 매어 입었다. 구성방법은 가장자리에 둥근 테가 있고 중심을 향해 살대가 있는데 철사나 고래수염으로 골격을 만들고, 그 속에 말 털, 양모 부스러기, 모직물이나 아마포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 팽팽하게 만든 다음 위에 모, 마, 비단 등의 천을 덮어씌웠다.³⁰⁾

롤은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개발된 드럼 파팅게일 위에 입혀졌으며, 비공식적인 행사 일수록 작은 크기의 파팅게일을 착용하였다. 롤 파팅게일은 새장처럼 고정된 스페인식보다 입고 활동하기 편하였으므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여자들이 말을 탈 때 이 파팅게일을 애용하였다. 입는 방법은 뒤가 약간 올라가고 앞이 내려간 기울기로 허리에 둘러 입었으며 이 위에 페티코트를 입었다.

4) 페티코트(petticoat)

항상 겉옷보다 짧게 하여 허리 밑으로 몸을 감싸게 입던 속옷으로 언더 페티코트라고도 부른다.

15세기 들어서면서 넓어진 스커트 밑에 페티코트가 입혀졌고, 정확히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6세기부터 점차 보급되었으리라 추측된다.³¹⁾ 16세기 초까지는 인위적인 후프드 페티코트 또는 파팅게일이 많이 입혀졌으나 점차 사용이 감소됨에 따라 우아하고 정교한 페티코트가 풍성함을 형성해주어 점점 그 수요가 증가되었다. 페티코트의 형태는 허리부분에 테잎(tape)이나 리본이 달려 있어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붉은 색의 모직이 많이 사용되었고, 어떤 것은 프린세스 페티코트와 비슷한 형태였다.³²⁾ 16세기 초까지는 인위적인 후프드 페티코트 또는 파팅게일에 의해 외형선이 유지 되었으나 1625년부터 파팅게일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자연스런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풍성한 페티코트가 착용되면서 새틴이나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대조적인 색으로 선을 들렸으며 어떤 경우에는 금 레이스로 장식했다.

5) 드로워즈, 언더니커즈(Drawers, Underknickers)

드로워즈는 부피가 풍성한 형태의 속바지로서 이탈리아 메디치(Medici)가의 카테린느(Catherine)가 처음 입기 시작하여 상당한 유행을 만들었다. 주로 이태리·프랑스의 상류층에서 착용되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입혀지지 않았다.³³⁾ 처음에 남성용 속옷으로 되어 브리치스나 호즈안에 입던 것인데 여성용으로써 최초의 것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등장하여 실용보다는 장식적인 용도로 승마시 사용되었다.³⁴⁾ 일반적인 형태는 무릎 바로 밑까지 오며 대체로 풍성했고, 소재는 린넨, 코튼 또는 머스린을 많이 사용하였다. 추운 유럽지역에서는 더러 보온의 목적으로 실크나 울을 사용했고 폭도 더욱 넓으며 길이도 길었다.

IV. 르네상스 문화가 속옷에 미친 영향

1. 의식 변화의 영향

1) 인간 중심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문예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으로 신본주의적인 중세적 개념으로부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적 권위아래 질식되어 가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상아래 자유주의적이고 현세 지향적인 인간의 쾌락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활 속의 본질을 이루고, 인간이 창조하는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으로 인간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대의 자유분방했던 관능을 소생시키고, 육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존중시하였다.³⁵⁾ 이러한 경향은 복식에 있어서도 중세의 견고하고 금욕적인 의복을 벗게 하였으며 많은 개성적인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르네상스복의 공통적인 특징은 적극적으로 인체의 아름다운 선을 강조하도록 신체에 꼭긴 형을 만드는데 있었으며 인간미가 강조되어 남성과 여성복식의 차이가 뚜렷해졌다. 따라서 각 의복의 특색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속옷이 창안되고 변화 되었는데 무척 신비스러운 인공적인 모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형태도 만들어졌다. 즉,

이러한 의상의 실루엣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르셋과 여러 가지 형태의 파팅게일이 고안되었다. 이시기에는 속옷의 중요성과 역할에 따른 심미적인 기능이 복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뿐만 아니라 기교적인 면에서 속옷에 요구되는 장식성은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였다.

2) 권위와 부의 과시

토르스테인 베블렌(Thorsten Veblen)의 유한계급 이론에 의하면, 의복행동의 동기를 유한계급의 표시라고 지적하고, 상류계급의 경제력과 지위를 자랑해 보이는 과시적 소비로서, 의복의 지위이론을 주창하였다.³⁶⁾

역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과시행동으로 그들의 부를 나타내는데 의복을 사용했다. 부는 항상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왔으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유하는 부도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왕실과 귀족의 의복은 항상 부를 과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국민으로부터 경의와 존경을 얻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³⁷⁾ 특히 대규모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문명화 된 정치 구조에서는 복식에 착용자의 정치적 권위의 정도와 지위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³⁸⁾ 르네상스의 자연과 인간을 인식함으로써 중세적 경건을 버리고 현세중심의 사고와 세속에 대한 강한 집념 즉 명예, 재산, 지위, 권력에 대한 욕망과 만능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더욱 이러한 과시욕구의 강한 토대를 이루었다. 따라서 귀족과 귀족화한 부유한 부르조아 상인들은 그 현세적 욕망을 달성하여 성공한 계급으로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였다. 그들은 과장된 의상과 화려한 장식으로 상류계급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여성의 스커트나 사이즈(size)는 계급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어서 그 속에 입었던 파팅게일이나 페티코트의 풍성함에 따라 부나 계급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만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의복이 가시적인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쉽게 계층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 옷에 사용되는 소재로 속옷의 가장 오래된 소재는 린넨이지만 부

유한 계층에서는 동양에서 수입한 실크나 수공예 의한 아름다운 레이스 등도 사용하였다.

3) 성적 매력

여성들은 미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미를 추구하기 이전에, 추구 하는 미의 이상(오히려 추구하는 이상미의 소유자)을 경정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최근까지도 단지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해 왔는데 첫째는 그들 스스로 원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인체와 의상을 조형하여 복식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⁹⁾ 성적인 상징으로 관능미를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인체 부위는 여성의 경우 엉덩이와 가슴인데, 르네상스 시대 복식의 특징은 스토마커를 덧대 위로 끌어올려 볼륨을 준 가슴, 코르셋으로 가늘게 조인 몸통과 허리, 그리고 엉덩이는 파팅계일과 같은 버팀대로 부풀려 여성의 성적 특징에 대한 인위적인 강조를 통해 성적인 에로티시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겉으로 보이지 말아야 할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슈미즈의 목둘레를 많이 노출 시키거나 슬릿을 넣어 그 안으로 속옷이 내비치도록 했다.

2. 기술 발달의 영향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제노아 등의 도시들은 비단직물산업과 레이스제조를 서둘러 발전시켜 금직, 벨벳, 레이스 등 화려한 의복소재를 많이 생산해 내었으며⁴⁰⁾ 왕이나 귀족 계급은 실제로 금으로 된 옷을 입었고 담비의 모피도 복식에 첨가되었다. 염료가 발달하여 색조와 문양이 다양화 되었으며 방직기계의 개량으로 인한 신상품이 개발되어 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는 탁월한 디테일 기법을 들 수 있다. 이시기에는 직물을 장식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었는데, 슬래쉬, 핑크, 페인 같은 장식 기법 그리고 아플리케(applique), 드로운 워크(draen work), 블랙 워크(black work), 컷 워크(cut work) 등 오늘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수 기법과 다양한 레이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디테일 기법들이 의복에 사용되었다.⁴¹⁾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인쇄술이었다.⁴²⁾ 인

쇄술의 발달은 직물산업이 발달한 이탈리아로부터 유럽 각국에 고전의 보급뿐 아니라 옷 모양이 그려진 카드를 만들어 새로운 모드를 전파시킬 수 있었으므로, 의상의 유행이 그림에만 의존하던 때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⁴³⁾ 이러한 영향으로 서적의 보급이 용이해지면서 예절, 철학 등의 다양한 책들 뿐 만아니라 의복에 관한 책들까지 무역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⁴⁴⁾ 기술의 진보와 기계개선, 그리고 염색가공의 과학적 진보와 병행한 다양한 직물과 함께 발달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직물과 장식품이 인본주의라는 시대정신과 결합하여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기이한 복장을 출현시켰으며 그 결과 속옷에 요구되는 장식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였고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속옷의 발달을 가져왔다.

3. 국제교류의 영향

십자군 전쟁과 지중해 무역을 통해 15세기 말 일찍이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한 이탈리아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직물업과 은행업으로 부를 증대시켜 나갔다. 이탈리아는 모직물과 실크를 최초로 직조하였으며, 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급스런 직물제조업의 중심지였다.⁴⁵⁾ 직물산업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고, 직조술이 더욱 발달되면서 직물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사치스러워졌다. 중세에 사용되었던 모든 소재가 르네상스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직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 많은 종류의 직물이 생산되었고 더욱 사치스러워졌으며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다양한 직물들이 유입되었다.

신대륙의 발견과 새 무역항로의 개척으로 인해 각국으로부터 진기한 물품이 수입되어 곧 복식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신상품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유행의 요소들은 즉시 전파되었는데 이는 여행과 통신의 증가, 또 르네상스시대의 발명품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옷모양을 그린 카드를 만들게 되어 그림에만 의존하던 전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에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빠른 유행의 보급으로 인하여, 16세기 후반부터 유행의 중심지가 이태리에서 독일로 스페인으로 옮겨지지만, 유럽 유행이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본스타일은 국제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V. 결 론

복식은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현상으로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의 의복은 남성의 것보다 형태상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본 연구는 급격한 형태변화가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 여자 속옷의 변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사고의 변화로 인간 중심적인 르네상스 정신은 교회적 권위아래 질식되어 가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상 아래 인간이 창조하는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복식에 있어서도 중세의 견고하고 금욕적인 의복을 벗게 하였으며 많은 개성적인 디자인을 창출하였고, 현세중심의 사고와 세속에 대한 강한 집념 즉 명예, 재산, 지위, 권력에 대한 욕망과 만능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더욱 이러한 과시욕구의 강한 토대를 이루어 속옷에까지 소재와 사이즈등을 통해 계급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또한 육체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풍만한 8등신을 인체의 이상형으로 추구하였다. 따라서 의복의 형태에 맞추어 인체의 자연적 형태를 인위적 수단인 코르셋과 파팅게일 등을 착용하여 외형상으로 가느다란 동체(胴體)와 크게 부풀려진 스커트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여성의 허리 사이즈를 줄이고 가슴선과 엉덩이 선을 강조함으로써 여자의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을 특징 지워주는 신체적 모습을 창조하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복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속옷 또한 겉옷에 맞추어 다양하게 창안되었다.

둘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법과 직물들이 생산되었다. 주소재로 사용되었던 린넨에서 고급스러운 실크까지도 속옷류에 사용하게 되었고, 정교한 자수 기법의 창안으로 스토마커나 슈미즈 등은 더욱 화려해졌다. 다양한 직물과 장식품이 인본주의라는 시대정신과 결합하여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기이한 복장을 출현시켰으며 기술의 발

달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속옷의 발달을 가져왔다.

셋째,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스페인에서 창안된 파팅게일이 프랑스로 전해지고, 더욱 편리한 스타일로 변형 발전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과 수입이 용이해지고 활발한 국제교류로 인해 서로 경쟁하면서 유행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식의 형태가 변화 발전되어갔다.

르네상스 시대는 복식의 획기적인 변화의 전환점이며 아울러 속옷 또한 많은 변화 발전된 시기라 볼 수 있다. 속옷의 변화 요인은 의식의 변화, 기술의 발달, 국제교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특징적인 의복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속옷류 역시 다양하게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속옷류들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Bressler, Karen, W., Karoline, N. & Proctor (1997). *Lingerie : A Century of Style*. New Jersey : Quarto Inc., p.11.
- 2) 閔錫泓 (1984). *서양사 개론*. 서울: 삼영사, p.336.
- 3) 車河淳 (1976). *서양사 총론*. 서울: 삼영사, p.270.
- 4) 金惠貞 (1990). 르네상스 개인주의 소론 -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5) Ibid., p.265.
- 6) 백영자, 유효순 (1998).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p.163.
- 7) Ibid., pp.118-119.
- 8) 이병주 외 4인 공저 (1985). *세계문화사*. 서울: 일조각, p.192.
- 9) 신상옥 (198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175.
- 10) Cosrave, B. (2000). *The Complet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from Ancient gypt to the Present Day*. New York: Checkmark Books, p.127.

- 11) Nunn, J. (2000). *Fashion in Costume 1200-2000*. Chicago: New Amsterdam books, p.29.
- 12) Cosgrave, B. (2000). Op. cit., p.128.
- 13) Payne, B. (1992).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321.
- 14) 被文化協會編 (1996). *服裝大白科 辭典 - 上*. 文化出版局. 昭和, p.410.
- 15) 한주 (1994). 파팅게일에 관한 역사적 고찰. 성신여대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p.4-5.
- 16) Willett, C. & Cunnington, P. (195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 : Michael LTD., p.3.
- 17) 이순자 (2000). Op. cit., p.34.
- 18) Willett, C. & Cunnington, P. (1951). Op. cit., pp.33-34.
- 19) 石山彰編 (1977). *服飾辭典*. ダウイット社, p.259.
- 20) 최영옥 (1983).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 논문집, p.656.
- 21) 단단한 나무나 고래수염등을 가늘게 엮어서 의복의 중요한 부분에 넣는 것.
- 22) 被服文化協會編 (1996). *服裝大白科 辭典 - 下*. 文化出版局, p.85.
- 23) 신상옥 (1986). Op. cit., p.175.
- 24) bucran : 풀이나 아교 등을 먹인 딱딱한 아마포.
- 25) fustian : 능직 무명의 일종으로 지금의 코듀로이(corduroy) 벨벳의 일종.
- 26) mocado : 파일(pile)이 있는 울(wool)로 된 직물.
- 27) 이정옥 (1983). *서양복식사*. 서울: 학문사, p.192.
- 28) Payne, B. (1992). Op. cit., p.291.
- 29) Waugh, N. (1970). *corset and crinolines*. Thearte Arts Books, p.24.
- 30) 이정옥 (1983). Op. cit., p.236.
- 31) Willett, C. & Cunnington, P. (1951). Op. cit., p.49.
- 32) Ibid.
- 33) Saint-Laurent, Cecile (1979). 深井光子編. *女の下着の歴史*. 文化出版局, p.73.
- 34) 石山彰編 (1977). Op. cit., p.496.
- 35) 박숙현 (1999). 르네상스 포스트 모던 시대 정신과 복식 조형성의 상관관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84-85.
- 36) 박일록 역 (1999). *복장학의 길잡이*. 서울: 경춘사, p.47.
- 37) 박길순 외 역 (1990). *복식의 심리학*. 서울: 경춘사, p.37.
- 38) Joanne, B. & Eicher, et al. (2000). *The Visible Self*. Fairchild Publication, p.222.
- 39) Bruach, H. (1996). *The Athlrtic Esthetic*. The Work Times Co.
- 40) 신상옥 (1986). Op. cit., pp.155-156.
- 41) Payne, B. (1992). Op. cit., p.154.
- 42) Cosgrave, B. (2000). Op. cit., p.118.
- 43) 신상옥 (1986). Op. cit., p.156.
- 44) Cosgrave, B. (2000). Op. cit., p.118.
- 45) Tortora, P. (1989). *A Surver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e publication, p.114.